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가치

이 지 하*

차례

1. 머리말
2.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의미
3. 고령지역 설화의 사회문화적 가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고령지역 설화가 지닌 특징적 양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현재 파악되는 고령지역의 설화 각 편 자료는 대략 360여 편 정도인데 대가야 건국신화인 <정건모주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설화가 전승된다.

고령지역의 설화가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인근 지역에 비해 전쟁관련 설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가야와 고려의 패망이나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화들이 다수 전해진다. 고령지역에 유난히 전쟁 관련 설화가 많은 이유는 이 지역이 대가야시대부터 국가의 흥망과 관련되는 전쟁을 경험하였고, 낙동강의 수운 확보와 관련되는 주요 지역으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도 격전지였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이와 관련하여 민감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고령지역에 전승되는 효행설화는 불효와 관련된 이야기나 머느리가 시부모 길들이는 이야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한정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설화 내용이 매우 진지하고도 점잖은 색채를 띠고 있다. 이는 여러 번의 전쟁 체험을 통해 진지한 현실인식을 중시하고, 유교적 분위기 속에 보수적인 미풍양속을 선호한 지역정서가 효행설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록과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이나 채록상태의 불완전성이라는 자료적 한계로 인해 이 지역 설화에서 추출되는 특성을 곧바로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민의 정서와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따른다.

이 외에도 고령지역의 전설을 통해 권선징악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지향하면서 사랑을 비롯한 인간본성을 긍정하는 고령지역 민심의 다양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지역의 설화는 고령의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중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부족한 역사 자료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측면에서 고령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령인의 생각까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바로 고령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들은 지역 내적으로는 지역민의 결속력을 다지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외적으로는 지역의 특수성과 인간의 보편성을 담아 설화 자료의 외연을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주제어

고령, 설화, 전쟁설화, 역사 의식, 효행설화, 윤리의식, 지역전설, 민심, 지역문화

1. 머리말

지역적인 관점에서 문학에 접근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로 설화를 들 수 있다. 지역민들에 의해 전승되고 구연된 설화 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는 물론 지역민의 의식까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 증거물을 상징하는 지역전설이나 역사적 인물의 행적과 관련된 인물전설의 경우 매우 강한 지역성을 띠게 되므로 지역적 특수성을 살피기에 적합한 자료라 하겠다.

지역문학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서의 설화가 지니는 또 다른 중요성은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다. 증거물까지 동원하며 사실성을 지향하는 듯한 전설마저도 실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때로는 매우 주관

적이고 비사실적인 요소들이 더 지배적이기도 하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기도 하며,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동성과 주관성이 바로 설화의 생명력인 것이다. 고착된 사실이 아니라 전승과정에서 다양한 변이를 거치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과 인식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전승되는 설화의 경우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각편들 속에 공통의 지역 정서가 담겨있기도 하므로 다층적인 측면에서의 문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즉 지역설화의 경우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 지역의 특수한 정서, 화자의 개별적 정서가 어우러진 복합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령지역의 설화 자료 역시 고령인들의 역사인식, 세계인식, 미의식 등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자연발생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문학 장르로서의 설화는 생생한 민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록물과는 차별화되는 가치를 지닌다. 특히 고령지역의 경우 대가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화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설화 자료가 전승되어 왔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고령지역의 설화 작품이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구비문학대계 조사 사업에 고령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¹⁾ 그 외에도 현장 조사를 통한 채록 작업이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고령지역 설화 자료는 고령문화원에서 편찬한 『우리 지방의 민담·전설 및 지명유래』²⁾와 김광순의 『한국구비문학—경북 고령군』³⁾ 정도가 대표적이다.⁴⁾ 고령지역

1) 본 발표의 토론을 맡아주신 이강옥 선생님 역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 사업'에도 고령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고령지역 설화의 보존에 우려를 표명하셨다.

2) 고령문화원 편, 『우리 지방의 민담·전설 및 지명유래』, 1988.

의 설화에 대한 연구도 드문 편이며,⁵⁾ 그나마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현재 보고된 자료를 섭렵할 수 없었던 탓에 현행 자료의 실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산견된다. 따라서 고령지역 설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시론적 단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채록된 고령지역 설화 자료를 개관하고 그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고령지역 설화 연구사의 서두에서 본 연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기본 소임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지역 설화가 지닌 특징적 양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주체인 고령사람들의 의식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의미

현재 채록된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고령지역의 설화는 1988년 고령문화원에서 조사한 65편,⁶⁾ 1997년 김재웅에 의해 소개된 71편,⁷⁾ 김광순에

3) 김광순, 『한국구비문학—경북 고령군』, 박이정, 2006.

4) 이 외에도 『고령군지』 등에 소수의 설화가 실려 있으나 이는 고령문화원에서 편찬한 자료의 일부를 재수록한 것이다.

5) 김재웅, 「고령지역 설화의 전반적 고찰」,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양상과 의미」, 『대구·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6) 고령문화연구원, 앞의 책.

이 책의 앞부분에는 '민담 및 전설'이 수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간략하게 '지명유래'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유래' 부분은 서사적 맥락을 갖추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설화적 맥락을 가진 것들은 앞의 '민담 및 전설' 부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설화 연구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단 논의의 보충 자료로서는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7) 김재웅,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의해 소개된 319편⁸⁾ 등이다. 김광순의 자료 중 단순한 지명유래담 등을 제외하고, 중복 수록된 작품들을 감안하면 현재 파악되는 고령지역의 설화 각편 자료는 대략 360여 편 정도라 하겠다. 이 중에는 동일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설화들도 다수 존재하나 구비문학으로서 구연상황과 화자에 따른 변이도 주요 관심거리가 되는 설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별 각편들을 독자적인 작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고령지역에 전승되는 설화 중 최우선으로 주목을 끄는 것이 대가야와 관련된 신화들이다. 우선 이 지역이 대가야 왕국의 고도였던 만큼 대가야의 건국신화라 할 수 있는 〈正見母主說〉⁹⁾이 전래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건국과 관련된 〈額有角人〉과 〈高天原〉 등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두 편의 이야기는 『일본서기』에 수록되어 있다. 가야산의 산신인 정견모주는 천신인 이비가와 감응하여 뇌질주일과 뇌질청예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중 뇌질주일은 대가야의 이진아시왕이 되고, 뇌질청예는 김해로 가서 금관가야의 수로왕이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대가야의 독특한 건국신화이면서 가야 지방의 건국신화로 잘 알려진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수로왕이야기〉와는 다른 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일본관련 신화들은 민간에 전승되는 것이기보다는 대가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¹⁰⁾ 민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을 건국한 천왕이 고

그러나 이 책에 실린 설화는 저자도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이 고령문화원에서 편찬한 자료와 중복되고(61편), 그 외에도 김광순의 채록본 6편(『경북민담』, 형설출판사, 1978-1편,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설출판사, 1983-5편), 임재해의 채록본 1편(『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3)을 제외하고 나면 3편 정도만이 새로운 설화라고 할 수 있다.

8) 김광순, 『한국구비문학-경북 고령군』, 박이정, 2006.

이 책은 앞서 김재웅이 1997년에 참고했던 자료들을 포함하여 고령지역의 설화를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9) 이 신화는 『동국여지승람』에도 수록되어 있다.

10) 김광순의 설화집에 수록된 이 두 편의 이야기는 고신대 가야문화자료실 객원연구원과 가야대 가야문화연구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령 사람이라 일본인들이 고령을 많이 방문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¹¹⁾

고령지역에는 대가야 신화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설화가 존재하므로 이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¹²⁾

1) 전쟁 체험과 역사 의식

고령지역에는 전쟁 관련 설화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가야의 멸망과 관련된 설화뿐 아니라 고려의 멸망, 그리고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된 설화가 50편 이상으로 전체 설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고령지역과 인접한 성주군이나 달성군에는 전쟁 관련 설화가 별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고령지역의 특수한 사례로 주목을 요한다.¹³⁾

그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대가야의 패망과 관련된 설화들이다. 대가야는 총 16대에 걸쳐 520년간 존속하면서 금관가야의 뒤를 이어받아 가야연맹체의 맹주로 활약하다가 562년 신라의 진흥왕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그런데 현전 역사 자료에서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도설지왕과 휘하 신료들의 항전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한다.¹⁵⁾ 이

11) 대가야 관련 신화들은 이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나 이 부분은 한일 양국 학계 간 이견이 존재하며, 이의 해명을 위해서는 양국 설화자료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바 본고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므로 이 글에서는 내용의 소개 정도에 그친다.

12) 설화 각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나 고령 설화 전체를 개괄하고 그 특징을 논의하고자 하는 본고의 소임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논의 과정에서 개별 설화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

13)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성주군과 달성군의 설화를 조사해본 결과 전쟁과 관련된 설화가 몇 편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전체 설화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14) 이문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137면.

는 대가야가 패망한 국가로서 역사 기록의 주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라에 의해 반란국으로 취급되는 등의 역사적 왜곡을 겪으면서 빚어진 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대가야의 패망에 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우선 패망한 대가야의 처량한 모습을 담아내는 설화들이 있다. 대가야의 왕비와 궁녀들이 피난을 가던 중 대가야의 서울을 하직하며 비너를 떨어뜨리고 간 곳(〈신동의 비너〉, 〈옥잠〉)과 대가야의 마지막 왕자인 월광태자가 도망을 가다가 허리띠를 풀고 쉬 장소(〈나대리〉), 또는 옥대와 용포를 버린 곳(〈옥계〉) 등이 대가야의 패망과 관련된 지명유래를 보여준다. 이 설화들은 왕족이 수도를 떠나 피신하는 황망한 모습을 통해 대가야의 비극적 최후를 전달한다. 그런데 구연자에 따라서는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다짐했다”는 등의 부연 설명을 가함으로써 대가야인들이 무기력하게 패배를 받아들인 것은 아님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설화 유형들도 있다. 〈거북바위〉, 〈부인성〉, 〈투구덤〉 등에서는 신라군에게 패배하기는 하였지만 끝까지 항거하는 대가야인들의 투혼을 강조하고 있다. 〈거북바위〉의 마량장군은 목숨을 건 싸움에서 패배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귀신이 되어 거북군사를 이끌고 와서 신라군을 격퇴했다고 하고, 〈부인성〉은 치열한 항전 중 부인네들조차 앞치마에 돌을 날라다 성을 쌓아 신라군을 섬멸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며,¹⁷⁾ 〈투구덤〉

15) 앞의 글, 135면.

16) 객관적 증거자료를 중시하는 역사가들에게는 이러한 설화의 내용이 신빙성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되지만 그것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역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그리고 그 이면의 의식을 주목하는 문학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설화들이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다.

17) 이 이야기는 동일한 내용이 임진왜란 때 왜적과 대항하는 이야기로 널리 전승되고 있는데, 이를 대가야의 항전과 관련지으려고 하는 점에서 대가야국 패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지역민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 대가야의 왕이 투구를 쓰고 신라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역사적 패배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를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가야의 패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는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는 설화들도 공존한다. 신라군을 방비하기 위해 도인의 힘을 빌어 산성을 구축하던 중 신라의 미인계에 빠진 도인이 독약이 든 술을 먹고 죽음으로써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동산성》)와 ‘썩은 덩’이라는 지명이 국가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도사의 말에 ‘산 덩’으로 개명하기로 하고 큰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썩은 덩’ 잔치에 와서 잘 먹고 간다는 말을 함으로써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나라도 망했다는 이야기(《썩은 덩》), 성을 지키던 대가야의 군사들이 신라군의 속임수에 속아 스스로 성문을 열어주어 패했다는 이야기(《주산성, 이산성》) 등은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패망이 재촉되었음을 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요컨대 대가야의 패망과 관련된 설화들은 역사적 패배와 관련된 비극적 정황을 담아내면서도 대가야인들의 적극적 저항행위를 통해 그 비극이 수동적인 포기나 굴복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가야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들의 부주의나 어리석음이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

18) 대가야의 적극적 저항은 신라에 경도되어 자발적으로 항복한 후 실리를 챙겼던 금관가야의 경우와 비교된다. 이에 신라는 대가야의 극렬한 저항을 반란으로 인식하고 이후 대가야의 국명을 그대로 군의 명칭으로 삼아 ‘대가야군’으로 호칭함으로써 우월감과 적대감을 동시에 드러내었다(이형기, 『대가야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118~127면 참조).

또한 역사적 아픔을 통해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려의 패망과 관련된 전쟁설화들이 존재한다. 〈미숭산과 미숭장군〉과 〈미숭장군과 애마〉, 〈운라산성〉 세 편의 설화는 이성계에 의한 고려의 패망 과정에서 끝까지 항거한 고려의 장군을 추앙하는 이야기이다. 이미 숭 장군은 고려인으로서 이성계 일파에 의해 고려가 멸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자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고려를 재건하기 위해 산성을 쌓고 항쟁하였다. 그러나 결국 패전하게 되자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순사하였고 휘하 장수들도 그 뒤를 따름으로써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의 영웅적 면모를 기리기 위해 그가 산성을 쌓고 항전하였던 곳을 미숭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그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요소로서 명마에 대한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이는 〈운라산성〉은 임의순 장군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개국한 이후에도 고려의 충신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전을 계속하였는데 임의순 장군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성계가 몸소 토벌군을 이끌고 내려오자 임의순 장군은 전력을 다하여 대항하였으나 결국 패하여 고령까지 도망쳐 운라산성에서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가 이성계군에 패해 쫓길 때 이제는 고려가 완전히 망하였다고 탄식하면서 분한 마음에 주먹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여 바위에 구멍이 났는데 그 바위가 운라산 중턱에 있다.

이 두 장군¹⁹⁾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에 대한 인식

19) 이미숭(李美崇)은 실존인물임이 확인되나 임의순의 경우 아직 실존인물임을 입증할 기록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임의순과 이미숭의 발음이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전승과정에서 구연자에 의해 동일인의 이름이 와전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 이성계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설화의 전승자들은 조선의 건국주인 이성계보다 패망국인 고려의 장수들에게 더 우호적이다. 이성계는 여진족과 왜구를 토벌하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다가 결국 건국주가 되는 인물이고, 이미숭과 임의순 장군은 명장이기는 하지만 망해가는 나라와 함께 몰락해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설화의 전승자들은 후자를 더 숭상한다. 이는 역사적 평가와는 별도로 전승집단의 도덕적 평가가 작용한 탓이라 생각된다. 즉 조선 건국 과정에서의 도덕적 당위성을 문제 삼으면서 훼손한 이성계와 비교하여 끝까지 충절을 지킨 인물들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성계와 관련된 인물전설은 다양한 양태로 전승되는데 그중 대립적 인물을 등장시키는 전설도 다수 존재한다. 그 대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성계의 대응방식이 달라지는 한편 향유자의 인식 태도도 차이를 보인다.²⁰⁾ 고려 지역에 전승되는 이 유형의 설화는 고려의 장수를 이성계의 대립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역사적 승패와는 상반되는 지지를 보인다. 즉 설화 속에서 승자와 패자의 가치 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설화의 비극적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이성계에 맞서다 죽음을 맞이한 고려장수는 영웅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마는 비극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기장수류의 민중적 영웅과 닮았으면서도 그가 지키고자 한 가치가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 아니라 구왕조에 대한 충의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설화가 고려지역에 두드러지는 것은 전승자들이 조선보다 고려에 더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보다는 부도덕한 승자보다는 불우한 패자를 응원하는 심리와 관련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대가야의 패망을 통해 망국의 설움을 경험한 지역정서가 전승자들의 의식 속에 면면이 계승되고

20) 이태문, 「이성계 전설의 인물인식과 그 특징」,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264면.

있을 것이므로 고려의 패망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설화를 관통하는 의식은 한 왕조의 멸망에 대한 애통함과 더불어 그 이면에 작동하는 배신과 충의라는 대조적 행위와 그에 대한 지역민의 가치판단까지 포착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고령지역에 전승되는 전쟁관련 설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임진왜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련된 설화가 20편 이상 존재한다. 특히 의병장과 관련된 설화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김면 장군 관련 설화가 가장 많다.²¹⁾ 김면 장군뿐 아니라 그의 부인에 관한 설화도 여러 편 남아있어 이 지역에서 의병장 김면이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김면 장군과 관련된 설화는 다른 설화들에 비해 긴 분량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수로서의 능력과 더불어 인격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김면 장군이 맨손으로 판 우물, 맨손으로 놓은 돌다리 등의 전설적 내용과 그가 순직한 후에도 왜군이 그의 호 松岩의 '松'자만 들어도 두려워하여 송림, 송정 등의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내용은 그의 영웅적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그가 이 지역에서 가장 숭앙받는 인물이 된 것은 영웅성을 능가하는 인격적 면모 때문일 것이다. 설화 속에는 자신의 私財를 털어 의병활동에 쓰고,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손수 우물을 파고 다리를 놓았으며, 전쟁 중에도 늘 민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그의 애국정신과 애민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김면의 효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편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민들에게 김면 장군은 완성된 인격체로서 거의 신성시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사후 400년 뒤에도 관이

21) 〈반운리 우물 전설〉, 〈송암 김면 장군의 호 송자에 얽힌 이야기〉, 〈호선대 전설〉, 〈송암선생부인과 박〉 등이 대표적이다.

씩지 않았고 관을 열자 향내가 사흘이나 온 마을에 진동했다는 설화의 한 대목이 이를 뒷받침한다.²²⁾

그의 부인 역시 박을 철근으로 위장하는 기지를 발휘해 왜군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여러 편 전승되고 있어 김면 장군과 함께 추앙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권율, 배집, 곽재우 등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는데 김면 장군의 경우에 비하면 왜적과의 전투에 관련된 단편적인 이야기 형태를 보인다. 이는 김면 장군이 고령 출신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므로 자세한 행적이 설화화될 수 있었고, 여기에 지역민의 자부심이 더하여 여러 가지 미담이 첨가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걸출한 의병장들만의 힘으로 고령지역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아님을 말해주는 또 다른 설화들도 존재한다. <오로성 이야기>와 <화적석>에는 온 지역민이 돌을 날라 성을 쌓고 단단한 바위를 과녁 삼아 활쏘기 연습을 한 끝에 왜적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이야기가 담겨있다. 수많은 민초의 힘이 보태지지 않았다면 몇몇 영웅적 인물들만으로 위기를 극복해내기는 어려웠으리라는 당연한 진리를 설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관련 설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혈 끊기에 관한 것이다. <구름다리 마을>과 <의봉산 약수>는 왜적이 고령지역 장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산맥을 끊었다는 내용이고, <이실고개>와 <독점재>는 명나라 장군 이어송이 조선에 큰 인물이 날 것을 우려하여 맥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왜군은 조선의 침략군이고 명군은 지원군인데 양쪽 모두 조선의 혈맥을 끊는 상황은 일면 모순적인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구분하는 전승집단의 의식이 담겨 있다. 이는 표면적인 동맹 관계와는 무관하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 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간파한 것으로서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진실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지혈을 끊어

22) <반운리 우물의 전설>.

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실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설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외세의 만행이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승자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가야와 고려에 관련된 설화들이 비극적 패배를 통한 비장미를 드러내고 있는 데 반해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화들은 대부분이 승리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대가야와 고려 관련 설화의 경우 전승집단이 망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강하게 구속된 반면 임진왜란 관련 설화의 경우 의병 활동을 통해 고장과 나라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더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 설화 구조를 변형시킨 것으로 파악되는 예로 〈백마담〉을 들 수 있다.

장수가 아내를 남겨두고 출전하면서 청룡산의 백마담이 하얗게 빛나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까맣게 변하면 죽은 것으로 알라고 한다. 아내는 날마다 가슴을 졸이며 청룡산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전쟁 중에도 백마담은 계속 하얗게 빛났고 장수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다. 주인공이 삶과 죽음, 혹은 승리와 패배를 표시하는 조건을 제시한 채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다가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극적 성격을 띤다. 실제 패배를 한 것이건, 착각에 의한 것이건 주인공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테세우스 이야기나 우리나라의 백일홍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백마담〉의 경우 제시된 조건과 민중의 기대치가 일치되는 결과를 그림으로써 보편적 이야기 구조에 변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승리를 염원하는 전승집단의 바람이 기존의 설화 유형에 투영되면서 변이를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고령지역에 유난히 전쟁 관련 설화가 많은 이유는 이 지역이 대가야시대부터 국가의 흥망과 관련되는 전쟁을 경험하였고, 낙동강의 수운 확보와 관련되는 주요 지역으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격전지였기 때문일 것이다.²³⁾ 지역민들이 여러 차례의 전쟁들을 겪으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민감한 역사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이와 관련된 인간 행위에 대한 비판적 안목, 국가와 고장 수호에 대한 강렬한 의지 등이 주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2) 효행설화에 담긴 윤리의식

고령지역에서 전쟁설화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야기는 효행담이다.²⁴⁾ 효행담은 전국적으로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설화 유형이다.²⁵⁾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자료의 상당수도 효행설화에 해당하는데 이는 효를 중시해온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대개 60세 이상 노인층으로 구성되는 제보자의 주관심사가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²⁶⁾ 경북이 예로부터 유

23) 경상우도는 임진왜란의 승패를 좌우한 요충지로서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격전지였는데 그중에서도 고령은 낙동강의 운송로 확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군을 막기 위해 산성이 축조되는 한편 명나라 군인들의 주둔지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고령지역의 의병운동과 의미』,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433~439면 참조.

24) 설화의 분류범에는 소재나 주제, 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각 편수로 인하여 구조적 특징에 의한 분류가 어려운 지역 설화의 경우 내용이나 주제에 의한 분류법이 현실적이라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

25) 설화 유형 중 일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효행담이고 그 다음이 열녀담인데 이 둘은 다른 유형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수의 각 편을 거느리고 있다.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177면.

26)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300~302면.

학의 중심지역으로서 효에 기반을 둔 가족윤리를 증시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고령지역에 효와 관련된 설화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효행설화 속에는 효와 관련된 경험이 다양하게 투영되는 가운데 효의 본질 및 실천방법에 관해 상이한 관점들이 맞물리고 있다. 따라서 효행설화의 유형 안에는 효행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불효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며, 효를 위한 행위가 오히려 불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의 딜레마를 다루는 효불효설화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유형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지역에 전승되는 효행설화는 매우 한정된 유형만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고령지역의 효행설화가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고령지역 효행설화 중 실존인물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로 <호랑이도 감동한 효자 성풍세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 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성풍세는 가난 속에서도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러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는 낮에는 상주진영에서 훈련을 받고 밤에는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상관이 부하에게 뒤를 밟게 해보니 호랑이가 성풍세를 태워 그 먼 길을 오고가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성풍세는 군역을 면제받고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이후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잉어가 저절로 배에 뛰어오르거나 한겨울에 거미줄에 실성한 대추가 걸려있는 등의 신이한 도움을 받으며 병구완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난으로 제사상에 올릴 고기가 없어 걱정하자 하늘에서 큰 핏이 떨어져 무사히 제사를 치를 수 있었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그를 성효자라고 불렀고, 그의 효행을 기리는 '성풍세효자비'가 고령군 다산면에 남아있다.

성풍세의 지극한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여 신이한 도움이 이어진다. 효행설화 유형은 전형적인 권선징악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효도를 하면 복을 받고, 불효를 하면 벌을 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효행에 대한 보상이 강

조되는데 위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효의 절대성과 이에 대한 하늘의 감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고령지역에는 위의 이야기 외에도 황새가 어머니를 살릴 약을 물어다 준 다거나(〈효자를 도운 황새〉) 토끼가 가난한 효자를 돕기 위해 하룻밤 만에 자라 하늘의 보물창고를 찢어 금은보화를 쏟아지게 하는 나무를 주었다거나(〈토끼가 효자를 돕다〉) 하는 식의 비현실적인 이적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은 초현실적이지만 이에 비해 보상물과 그 쓰임은 부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약, 부모 봉양을 위한 음식물, 제사를 치르기 위한 제물 등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효행의 미덕은 비현실적인 감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효행 자체는 지극히 현실적인 정황과 관련되는 것임을 상기하게 한다.

그런데 효의 절대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설화들에서는 자식들의 효행이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 오히려 비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자식이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 부모에게 드리는 유형이 가장 흔하고,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부모를 위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이야기이다. 이는 ‘자식 죽여서 부모 받들기’라는 유형으로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설화인데 고령지역에도 〈효성이 지극한 부부〉 등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이 유형처럼 자식을 희생시켜 부모를 받드는 내용의 설화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며느리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²⁷⁾ 사실 며느리는 시부모와 혈연의 관계를 맺지 않은 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육인 자식보다 시부모를 우선시하며 자식의 희생을 감수하는 내용은 효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처럼 인지상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위를 미화함으로써 효의 당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27) 김대숙, 앞의 논문 195~196면.

하는 극단적 효행담을 통해 효가 윤리적 차원을 넘어 이념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역시 효의 강조가 지나쳐 이념화되는 모습을 포착하게 하는 예를 고령지역의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열부이야기>와 <성산 배씨 효열문 설화>가 그것이다. 두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므로 이 중 <열부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산 배씨 집안에 시집온 이씨는 몸이 약한 남편과 연로한 시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는 효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집에 큰 불이 났다. 이씨는 우선 남편을 구해 밖으로 나왔으나 시아버지가 아직 불길 속에 남아있었다. 이에 이씨가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시아버지를 구해왔다.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호하고자 자신의 몸을 불쪽으로 향하게 해서 시아버지는 멀쩡하였으나 이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나라에서 이 일을 듣고 효열문을 지어주었다.

이 설화의 내용 중 시아버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산 배씨 효열문 설화>에서는 사당에 모셔진 조상의 신주로 대체된다.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길 속에서 시부모를 구출하는 이야기는 현실적 맥락 안에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미담이다. 그런데 구출 대상이 산 사람이 아니라 신주일 때는 사정이 다르다. 신주는 살아있는 조상이 아니라 죽은 조상의 상징물일 뿐인데 그것을 직계 자손도 아닌 며느리가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이야기는 효가 이념화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원래 효행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배윤리로서 이념화되는 과정에서 왜곡을 겪게 된다. 부모 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효의 특성은 혈연적 맥락을 통해 조상 일반으로 확대되기도 하고, 이것이 국가 질서로 편입되면 군신관계의 끈을 강화하는 논리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맥락

에서 남편 가문의 신주를 목숨을 걸고 지켜냄으로써 유교적 가부장제의 충실한 수호자로서 자처하는 효열녀 배씨의 이야기는 현실적 개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이 설화가 아름다운 효행담으로 읽히기보다는 충, 효, 열로 대표되는 중세 유교적 지배이념의 자장 안에 포획된 이야기로 파악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고령지역의 효행설화 안에 존재하는 몇 가지 층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층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로서의 효행을 칭송하던 설화 내용이 극단적 희생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쪽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이념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해준다.

그런데 앞에서 고령지역의 효행설화가 한정된 유형성을 보인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는 불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들이는 유형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너무 엄격하거나 드센 시부모를 재치 있는 며느리가 길들여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며느리가 시부모 길들이기’ 유형은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설화인데 특히 경북 지역에서 다수가 채록되었다.²⁸⁾ 고령과 인접한 달성군과 성주군에서도 이 유형의 설화를 여러 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고령의 설화에서는 이 유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이 지역의 효행설화가 매우 진지하고도 점잖은 색채를 띠는 것과도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민족문화의 발상지요 유서 깊은 대가야의 고도였던 고령은 각 시대마다 사신, 효자, 효부, 열녀가 많이 나고 사회적으로는 절개 굳은 의사도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므로 절의를 숭상하는 미풍이 많으나 완고하고 보수적인 경향도 엿보인다”²⁹⁾고 보고한 『고령군지』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

28) 이인경, 앞의 논문, 326면 표 참조.

29) 『고령군지』 제9편 제2장 민속 中, 구일출판사, 1996, 925면.

다. 진지한 차원에서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는 순종적 효행설화를 선호하는 보수적 지역정서가 부모 자식 간의 상하관계를 역전시키는 ‘며느리가 시부모 길들이기’ 유형이나 불효 이야기를 기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설화 중에는 민담류의 우스개나 동물담이 매우 희소하다는 사실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두 유형의 경우 각 5편 이내의 분포를 보여 전체 비율상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 지역인 성주군이나 달성군에 다수의 해학적 이야기와 동물관련 우화들이 존재하는 사실과도 비교된다. 우스운 이야기나 동물우화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설화 유형임을 감안할 때 유독 고령지역에만 이러한 유형의 설화가 드물다는 사실은 위의 지역정서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여러 번의 전쟁 체험을 통해 진지한 현실인식을 중시하고, 유교적 분위기 속에 보수적인 미풍양속을 선호한 지역정서가 효행설화에 있어서도 해학이나 반어적 수법보다는 직설적이고 진지한 형태로 효행의 미덕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띠게 한 것이라 하겠다. 효행설화와 더불어 열녀이야기나 우애담 등도 비슷한 맥락 안에서 구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고령지역 설화가 지니는 자료적 한계이다. 구연현장의 상황이 중시되는 구비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지역 설화의 채록 과정과 현존 자료의 기록상태가 지니는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 자료 중에는 누구에 의해 언제 구연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설화가 상당수이고,³⁰⁾ 채록 작업도 주로 대학원 석박사생을 동원하여 이루어졌다.³¹⁾ 구연자들이 학생들에게는 주로 점잖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구비설화 채록현장에서의 특징임을 고려하면 이 지역 효행설화가 유난히 진지하고도 교훈적인 측면에 초점

30) 고령문화원 편, 『우리 지방의 민담·전설 및 지명유래』, 1988.

31) 김광순, 『한국구비문학-경북 고령군』, 박이정, 2006, 6면 참조.

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구연자료가 아니라 편집자에 의해 문어적으로 편집된 자료라는 사실 또한 구비설화 연구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설화 중 종종 등장하는 논평이 구연자의 것인지 편집자의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자료가 어느 선까지 합리적으로 개작된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적 한계로 인해 이 지역 설화에서 추출되는 특성을 곧바로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민의 정서와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지역적 특성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채록 상황과 자료의 한계 때문에 전승의식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3) 지역전설과 민심

고령지역의 구체적 지형이나 지역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지명유래담과 가문의 흥망담, 지역 내 금기사항과 관련된 설화들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명유래담의 경우 뚜렷한 사건 없이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사적 성격이 약한 편이다. 이 중 <상비리와 서유재>의 경우 움직이는 코끼리코의 형상을 한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코끼리의 천적인 쥐를 등장시켜 지명을 만드는 과정을 인물과 사건을 갖춰 표현하고 있어 가장 탄탄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3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지명유래담 중 유독 이 이야기에 대한 각 편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명곡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해마다 무서운 재난이 잇달았다. 그러나 원인을 몰라 온 마을이 근심에 잠긴 채 두려움에 떨 뿐이었다. 어느 날 한 도승이 이 마을을 지나다 날이 저물어 잘 곳을 청하였다. 집집마다 거절을 하였으나 겨우 한 집에서 허락을 해 주었다. 도승은 그 보답으로 마을에 재앙이 닥치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마을의 앞산이 코끼리가 코를 움직이는 형상(象鼻山)인데 명곡동이 그 코 위에 얹혀있으니 재난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코끼

고령지역에 전해지는 가문관련 이야기들은 내력담의 형태보다는 가문구성원들의 행위에 의해 흥망이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풍수지리적 내용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도가의 패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옥계 부근에 예전에 심씨 가문의 세도가 대단했는데 행패가 너무 심하여 지역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가야산 산신령님이 도승으로 변하여 심씨를 찾아가 조상의 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자손이 끊어질 것이니 빨리 명당을 찾아 묘를 옮기라고 했다. 이에 심씨 집안에서 스님을 인질로 묶어놓고 묘를 파니 안에서 학 두마리가 날아올랐다. 스님도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이후 심씨 가문이 망하고 사람들도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에는 지역 내에서 세도가의 횡포에 고통을 당하며 불만을 품었던 지역민들의 원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선징악적 사고에 기반하여 지역공동체의 원만한 조화를 꿈꾸었던 지역민들의 바람이 설화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한편 금기담의 경우 개인적 차원의 금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금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을이나 부락 단위의 공동체 생활에서 중시되어 온 전통적 가치관이 설화전승자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숭산의 천제당〉이라는 설화를 살펴보자.

미숭산은 고려말 이미숭 장군의 충절이 깃든 곳이다. 그곳에 천제당이라는 신령한 터가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인근에 비가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요절하는 등의 온갖 재앙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다. 최근(1988)에도 심한 가뭄이 들어 고생하던 끝에 천제당에 올라가보니 누군가의 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묘지의 주인을 찾아 이장토록 하니 단비가 내려

리의 천적인 쥐가 코끼리 코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서유재(鼠留在)라고 하니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되었다.”

무사히 모내기를 마칠 수 있었다. 묘를 쓴 사람은 타지인이었는데 집안의 불운을 벗어나기 위해 신령한 장소를 골랐던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미숭산은 지역민의 숭배의 대상이며 공공의 이익을 상징하는 곳이다. 지역민은 그곳에 신령함과 더불어 금기를 덧씌웠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금기를 깨고 이를 침범함으로써 화가 미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위를 우위에 두는 지역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대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공동체적 삶의 전통이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문제의 책임을 외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내적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화합을 도모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지만 외부로 향해서는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이중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 샘을 파면 안 되는 곳에 외지 사람이 샘을 파서 마을 전체에 문제가 생겼거나(〈샘을 파면 안 된다〉) 당산제가 열리는 기간에 마을 우물물로 여성의 생리혈이 묻은 옷을 빨거나 아이를 낳아 목욕을 시키거나 하면 우물물이 빨갱게 변한다거나(〈마을 우물이 빨갱게 변한 이야기〉) 하는 이야기 등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고령지역 전설 중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다수 존재한다. 이 지역의 대표적 사랑이야기로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 부모의 반대를 받던 연인들이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면서 나무를 심어놓고 갔는데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남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는 〈당수나무에 얽힌 이야기〉와 봉화산의 처녀꿈이 길 잃은 사냥꾼을 구해주고 함께 살다가 사냥꾼이 도망간 후 절망하여 나무에 목을 매고 말았다는 〈봉화산의 처녀꿈〉³³⁾이 있

다. 전자가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해내는 적극적 내용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성을 그리고 있다. 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신분, 혹은 빈부의 차이가 장애요소인 반면 후자의 경우 인간과 동물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남녀 쌍방이 서로 사랑하는 데 비해 후자의 경우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과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동물 사이의 불일치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랑의 결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물과의 사랑을 다루는 후자의 이야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그 상처로 죽음을 선택하는 동물의 신의와, 상대를 이용하여 위기를 넘겼으면서도 끝내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인간의 배신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성과 동물성이 도치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인간과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행위를 하는 동물의 대비를 통해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반성하게 된다. 이때문에 곰치녀의 죽음이 더 비극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이야기를 다루는 설화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긍정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드러내면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을 반성하게 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만 전승되는 설화로 우륵 관련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가야금을 만든 우륵이 대가야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령읍의 전설 중에 <정정골과 가야금>, <쾌빈동 정정골 전설과 동구뱅이 전설>이라는, 우륵관련 설화가 두 편 전해진다. 역사적으로는 우륵이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에 신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설화에서는 이를 가야금 연주가 군신을 유혹에 빠지게 하여 국운이 쇠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우륵이 악기로 인한

33) 이 설화를 단군신화의 웅녀와 비교하여 곰여인의 형상에서 신화의 신성성이 제거되면서 비극적 여인상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살핀 연구도 있다(조현설,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국운의 쇠퇴를 막기 위해 신라로 넘어간 것으로 미화하고 있어 역사와 설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야금과 이를 만든 우륵을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간직하고 싶은 지역민들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변형하여 전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고령지역의 전설에 반영된 민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권선징악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지향하는 지역정서가 때로는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띠기도 하고, 지역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미화를 통한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본성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사랑을 긍정하는 한편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고령지역 설화의 사회문화적 가치

고령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곳이면서도 그간 그 가치에 걸맞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외된 이래 대가야의 명성을 기억할 만한 관심이 고령지역에 주어진 적이 없었던 듯하다. 실록이나 대동야승,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고령에 대한 기록이 매우 소략한 편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자료에서 고령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부분은 임진왜란 관련 기사이다. 요충지로서 격렬한 전투의 현장이었고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곳인 만큼 이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편중된 문헌기록을 통해 고령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측면에서 고령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령인의

생각까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바로 고령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지역에는 역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대가야 관련 신화와 전설들이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비문학 자료들은 사라진 역사의 공백부분을 재구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와는 달리 지역정서를 왜곡 없이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기록과는 다른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대가야의 멸망 후 상층계급의 상당수가 신라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徙民되었음을 고려하면³⁴⁾ 이 지역에 전승되는 대가야 관련 설화는 대대로 이 지역을 지켜온 일반 백성을 통해 이천년 동안 생명력을 부여받아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식 기록들이 문자를 통해 官의 생각을 담아낸 반면 구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民의 생각을 담아내는 설화자료의 경우 지배층 위주의 편향성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설화 가운데 대가야 관련 설화들만이 유독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지역전설은 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에 기반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의미화 과정을 거친 후 역사적 계승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우곡면의 도진리에 있는 상마석³⁵⁾은 자연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34) 신라는 대가야를 멸망시킨 후 지배층을 거주지에서 멀리 옮겨 토착세력과 분리시키는 정책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우륵과 강수 등이 사민된 대가야인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이영호, 『대가야 멸망과 고령지역의 변화』,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345~350면).

35) 이와 관련된 설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진마을은 양반마을로 유명한데 양반들이 출타할 때마다 하인들이 엮드려 말을 타기 쉽게 하는 발판 노릇을 해야 했다. 그러나 매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하층민들에게 이 일은 큰 고역이었다. 어느 날 힘센 하인 하나가 산에서 스님을 도와준 대가로 알게 된 것이라면서 큰 돌판을 지고 와 발판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 이후 마을 하인들은 돌 덕분에 발판 노릇을 안 해도 되었고, 이 돌은 상마석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돌에 부여된 전설을 통해 상층민의 발판 노릇을 해야 했던 하층민의 애환과 이를 벗어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도진리는 양반마을로 유명하지만 만약 지역정서가 하층민의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쪽이었다면 이런 전설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뒤에도 전승력을 지니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전설을 통해 평범한 돌덩어리가 지역의 과거 관행과 지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인문지리적 증거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지역의 설화는 고령의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중요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설화에 담긴 지역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령지역의 특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인접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이런 특징들이 설화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구현되는 점을 포착하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령지역의 설화는 지역민들 간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계승함으로써 소속감과 결속력을 다지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령지역 설화가 지역 내에서만 자족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특수성의 측면에서 고령 설화의 특징은 경북 지역 설화의 색채를 다양하게 해주면서 새로운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보편적 측면에서 고령 역시 경북의 일부로서 경북 문화의 공통적 특질을 공유하는 가운데 좀 더 큰 범주의 지역문화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즉 고령지역 설화가 지니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경북지역 → 영남지역 → 한국 → 세계의 단위로 포섭되면서 점차 동심원적 구조를 지니고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관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부분과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설화가 지니는 상생적 위상이라 하겠다.

이는 고령지역 설화만이 지니는 가치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고령을 포함한

개별지역의 설화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를 포괄하는 상위 단위의 가치 역시 허구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고령처럼 역사적, 문화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구비설화 자료에 대해서는 구비문학 연구의 지역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고령지역 설화가 지니는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해 보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설화의 성격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고령과 고령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고령지역의 설화가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대가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인근 지역에 비해 전쟁관련 설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 지역이 대가야시대부터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전쟁을 경험하였고, 낙동강의 수운 확보와 관련되는 주요 지역으로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도 격전지였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이와 관련하여 민감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전승한 것과 관련된다 하겠다.

한편 고령지역에 전승되는 효행설화는 불효와 관련된 이야기나 며느리가 시부모 길들이는 이야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한정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설화 내용도 매우 진지하고 점잖은 색채를 띠고 있다. 이는 여러 번의 전쟁 체험을 통해 진지한 현실인식을 중시하고, 유교적 분위기

속에 보수적인 미풍양속을 선호한 지역정서가 효행설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록과정이나 채록상태의 불완전성이라는 자료적 한계로 인해 이 지역 설화에서 추출되는 특성을 곧바로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민의 정서와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따른다. 이 외에도 고령지역의 전설을 통해 권선징악적이고 공동체적인 의식을 지향하면서 사랑을 비롯한 인간본성을 긍정하는 고령지역 민심의 다양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지역의 설화는 고령의 지역문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중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부족한 역사 자료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측면에서 고령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고령인의 생각까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바로 고령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들은 지역 내적으로는 지역민의 결속력을 다지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외적으로는 지역의 특수성과 인간의 보편성을 담아 설화 자료의 외연을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집단의 향유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성을 대표하기에 매우 적절한 자료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령지역 설화 자료의 수집 현황이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최근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제 고령지역에서 설화를 채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마저 놓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승력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구비문학의 특성을 생각하면 쉽게 좌절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예로부터 고령지역에 전승되는 설화들을 수집하는 일과 더불어 새롭게 생성되는 설화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高靈郡誌』.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野乘』.

『朝鮮王朝實錄』.

『口碑文學大系』.

고령문화원 편, 『우리 지방의 민담·전설 및 지명유래』, 1988.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고령문화원,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7.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고령지역의 의병운동과 의미」,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김광순, 『한국구비문학-경북 고령군』, 박이정, 2006.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김재웅, 「고령지역 설화의 전반적 고찰」,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김재웅 편, 『잊혀져 가는 고령 지역의 마을문화』, 고령문화원, 2002.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양상과 의미」, 『대구·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신동훈,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집문당, 2002.

유병규, 『고령지방의 마을사』, 고령문화원, 1992.

이문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이영호, 「대가야 멸망과 고령지역의 변화」,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이태문, 「이성계 전설의 인물인식과 그 특징」,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이형기, 「대가야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 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

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도서출판 역락, 2008.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영해지방 현지조사 자료의 구비문학적 분석』,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조현설, 『옹녀·유화 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Abstract

The Characteristic and Value of Goryeong(高靈) Folktales

Lee, Jee-Ha

This essa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Goryeong folktales. There are about 360 folktales left in Goryeong, including <Jeonggyunmojoo(正見母主)> which is the birth myth of a nation 'Daegaya (大伽倻)'.

Compared to other regions, Goryeong folktales have some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 folktales about war hold a high rate. They are related with Daegaya(大伽倻) and Corea(高麗)'s defeat o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is area has been a strategic foothold from ancient era, so has experienced many wars. Therefore residents in this area have strong historical consciousness through it.

The tales about filial piety have a big part in Goryeong. But they don't include the types of disobedience to parents. The contents also have a serious and refined tone. It seems to derives from local atmosphere of Goryeong that values serious realism and conservative customs in a Confucian mood.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to connect directly the characteristics of folktale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is area or emotion of Goryeong people because the folktales of Goryeong as research materials have a defect that recording state is incomplete.

On the other hand, the local legends of Goryeong show diverse features that lay weight on poetic justice and community spirit. It also reflect the public sentiment of Goryeong people affirming human nature such as love.

Goryeong folktales are valuable for important data reflecting Goryeong culture.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historical documents and furthermore to study history, culture and public sentiment in a new direction. These folktales are also worth to make strong relationships among Goryeong people and to extend the data of folktale.

Key Word

Goryeong(高靈), folktale, war, historical consciousness, filial piety, moral consciousness, local legend, public sentiment, Local culture

- 논문투고일 : 2009.5.30. 심사시작일 : 2009.6.2. 심사완료일 : 2009.6.12.